

오피니언

다산포럼

이승우



한 신용카드 회사가 새해 인사 형식의 광고를 내보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신 '부자 되세요!'라는 카피를 쓴 것이 10년쯤 전인 것 같다.

돌잔치에서 부모는 아이가 돌잡이 물건 가운데 돈을 잡아야 좋아한다. 펜이나 노트를 잡으면 그걸 빼앗고 역지로 돈을 쥐어 주는 풍경을 어렵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요새는 그 인사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린다. 보통 사람들도 덕담을 주고받을 때 '부자 되세요!'를 즐겨 사용하는 듯하다. 복(福)이 부(富)로 단순하고 명쾌하게 전환된 셈이다.

돌잡이에서 부모는 아이가 돌잡이 물건 가운데 돈을 잡아야 좋아한다. 펜이나 노트를 잡으면 그걸 빼앗고 역지로 돈을 쥐어 주는 풍경을 어렵게 볼 수 있다.

예컨대 부정한 아버지는 용서할 수 있어도 가난한 아버지는 용서할 수 없다거나 돈만 많으면 못생긴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투의 농담 속에 이런 생각이 숨어 있다.

헤가 바뀌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 들리기로는 실용주의를 지향할 거라고 한다. 나는 실용주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사회가 원칙이나 정성적 가치를 도외시한 상공지상주의나 출세제일주의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든다.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것이 직장인들 사이에 유행이라고 한다. 제목만 다른, 그렇고 그런 내용의 체서들이 책방에 넘쳐난다. 의사나 변호사는 하는 일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벌어들이는 수익 때문에 선호와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있다.

이념의 대결이 사라진 역사적 정황을 거론하며 정신의 가치를 내세우는 일이 시대착오양 매도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다. 모로 고 서울만 가면 되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것이 시대정신이라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서울

에 가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쥐는 왜 잡으려고 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행동들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 행동의 결과로 얻을 이익이 있는가, 있다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면 곤란하지 않은가. 실천 없는 원칙주의는 갑갑하지만 원칙 없는 실용주의는 천박하고 외설스럽다.

실용주의의 중요한 동력인 유용성이라는 것도 그렇다. 이익이란 하나의 잣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있고, 그 이익 간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출세와 성공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그리고 부의 획득이 출세와 성공의 척도가 되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요새 그런 경향이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지도 모른다든 우려가 생기는 것은, 세속적인 출세와 성공을 이뤄낸 대통령 당선자의 남다른 이력 때문인 듯하다. 그는 대기업의 회장이었고, 서울 시장이었으며, 무엇보다 부자이고,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다.

먼저 이룬 사람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언제나 세상의 표본이 된다. 지도자의 철학과 처신이 중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새 대통령이 어떤 표본이 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출세와 성공이라는 그의 외양에 사람들의 시선이 오래 머물 때, 그의 실용주의는 자칫 천박해질 수 있고, 잘못된 교사의 손가락질이 될 수 있다. 부자이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그런 뜻에서 그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인지 모른다.

의사나 변호사가 돈을 잘 벌기 때문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대통령 또한 그러하다. 대통령은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 옳다.

(조선대 교수·소설가·다산연구소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실용주의

눈앞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이 있고, 그 이익 간에도 충돌이 있을 수 있다. 포괄적인 이익과 부분적인 이익이 있고, 가시적인 이익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이 있으며, 그 이익 간에도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당장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담배는 유용하지만,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몸을 해치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다. 예술이나 문화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익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인생을 유의미하게 디자인함으로써 이익을 준다. 요컨대 어떤 실용주의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한 균형 감각이 필요한 것이다.

시설

J프로젝트 F1특별법이 관건이다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J프로젝트)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들이 잇따라 정부에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하면서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인 F1(포물러 원)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무산돼 사업 차질이 우려됐으나 5개 SPC 가운데 3곳이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마쳐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역을 동북아 관광허브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매년 227만명의 관광객 유입으로 연간 569억원의 관광수입이 발생한다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다. 전남이 낙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대 현안사업인 것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J프로젝트 시행자인 서남해안레저(주)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이 문화관광부에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썬카운티(주)가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한 데 뒤이는 것이다. 이로써 3개 SPC의 51.57km에 대한 개발계획이 구체화돼 2009년 초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됐다. 나머지 2개 SPC도 내년 2월 말까지 개발계획을 신청할 것이라고 한다.

지역의 주요 미래성장동력으로 꼽히는 J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하지만, J프로젝트의 현 상황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전남도가 J프로젝트 선도사업으로 심혈을 기울여 온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지원할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무산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태다. 대형 SPC들의 잇단 개발계획 승인 신청으로 다시 탄력을 받게 됐지만 F1 특별법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J프로젝트는 전남의 미래관광을 이끌어 갈 핵심 인프라로 영암과 해남지

카지정부는 이명박 당선자가 지방성공시대 열기 위해 J프로젝트의 적극 추진을 약속한 만큼 F1 특별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당선자-재계 경제살리기 뜻 모았다는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28일 전경련을 방문해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당선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선자와 재계 총수들이 경제살리기에 뜻을 모은 것을 환영한다.

우리의 현실에서 경제살리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당선자도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만큼 재계가 발벗고 나서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야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고 실업난도 해소할 수 있다.

이 당선자는 "기업은 글로벌시장에서 평가를 받으면 된다" "투자해서 일 자리를 만드는 분들이 존경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친 기업, 친 시장" 정서를 강조했다. 지난 10년간 '반 시장적·반 기업적' 정서로 기업이 편치 않았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참여정부의 재벌정책과 차별화를 분명히 한 것이다.

경제하는 것은 편향된 재벌 위주의 정책이다. 재계는 간담회에서 수도권 규제와 노사문제를 집중 언급했다.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와 노사문제가 외자 유치 및 기업의 투자 확대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를 서둘러 완화하면 비수도권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

주목되는 것은 앞으로 설치될 '민관합동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지만 재계와 유익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위원회 구성이 재계의 권의를 받아 당선자가 수락하는 형식으로 채택됐다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당선자의 공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과 수도권 위주의 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 당선자는 중소기업과 서민, 비수도권 대표들과도 만나 해법을 모색하기 바란다. 정경유착 '단어'가 없어졌다지만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유착으로 비칠 수도 있다.

공공장소에서 '신발 예절' 지키자

음식집이나 상가, 잔칫집 등에서 구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없이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서 흐트러지게 놔두고 들어간다. 그러다보니 다른 사람의 신발을 밟는 경우는 흔하고 심지어 깨끗이 닦여진 신발을 밟아 흙과 신발 자국이 묻는 바람에 항의와 말다툼을 하는 일도 많다.

필수준을 가늠해 된다. 외국인들의 경우 때때로 자신의 신발을 꼭 신발장에 넣고 들어간다. 침대생활을 하는 데도 신발을 벗고 신는 생활을 하는 우리보다 더 예의를 잘 지키는 일본인이나 재일동포들은 신발장에 신발을 넣어두는 습관을 갖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작은 데서부터 기본예절을 지켜야 할 것이다.

신발을 신고 벗는 데서 사람들의 기본 예

▲우도형·광주시 광산구 송정1동

수입쌀 국산둔감 막을 추척시스템 시급

최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전국 수입쌀 취급업체 총원산지표시 위반업체 단속에서 24곳이 적발됐다.

입하는 것이다. 즉 수입쌀이 배에서 내려지는 순간부터 소비자 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 경로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면 된다. 그러면 엉뚱하게 팔거나, 속에서 판 뒤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수입쌀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안먹으면 상관없지만 그 쌀이 토종쌀로 둔갑해 팔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결국 이 같은 사기 판매를 막는 방법은 유통과정을 철저히 기록하고 그것을 증거로 내놓을 수 있는 쌀의 유통추척시스템뿐이다.

수입쌀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안먹으면 상관없지만 그 쌀이 토종쌀로 둔갑해 팔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결국 이 같은 사기 판매를 막는 방법은 유통과정을 철저히 기록하고 그것을 증거로 내놓을 수 있는 쌀의 유통추척시스템뿐이다.

그 방법은 수입쌀의 유통추척시스템을 도

▲나혜성·광주시 서구 서창동

Table with 2 columns: 광주시 일보 (G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info.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박병재



지난 6월 광주시가 뜰 활짝여 산행하기에 안성맞춤인 무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풍선을 띄우더니, 이제는 뜬금없이 30억원이나 투자해 서석대 앞에 관광대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이는 '개발 만능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근시안적 발상이다.

숨의 장으로 여러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다. 필자는 3월 학기 초가 되면 학급 끝나무·학부모와 함께 무등산 일주를 25년째 하고 있다. 끝나무들과 몸소 산행하면서 무등산 사랑과 참을성·협동심·배려하는 마음을 돈이 아닌 팔과 가파른 호흡으로 다진다. 더 나아가 세소리·물소리·바람소리를 듣게 하여 자연을 보충·보호해야만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교육도 한다.

무등산은 생태학습장이다

산은 그저 산행하기에 참 좋은 산일뿐이다. 둘째, 무등산 서석대 천연기념물 제 465호 주상절리다. '주상절리 보호대책'을 위해 서석대 앞에 '관광대'설치를 하려는 것은 제주도의 주상절리 관광대를 본떠서 하려는 것 같은데 무등산은 그곳과는 지형이 완전히 다르다. 제주도 주상절리는 앞을 바라보려면 배타고 바다 가운데로 가서 바라보아야 하기에 관광대가 필요하나 서석대는 장불재로 올라가는 길에 서면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볼 수 있는 곳이니 무등산은 자연 그대로 보호·보존해야 한다.

이 산행이 발전해 지난 2006년 가을에는 전교생 600여명이 산장~꼬막재~광일목장~규봉암~장불재(입석대~서석대)~군사도로~늦재~산장

각종 서적 너무 무겁고 커 독서 기피 요인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각종 서적들이 너무 분량이 많고 무겁다. 320페이지 분량의 미국판 원서를 달아왔더니 260g 이었는데 이것을 일본에서는 글자 크기를 줄여 280페이지에 150g짜리 문고판으로 내놓은 게 있다

유독 우리 책이 무거운 이유는 커진 책크기도 이유지만 무거운 종이의 질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한다. 종이를 만들려면 인쇄품질을 높이기 위해 충전제인 돌가루를 넣도록 돼있는데 이것의 비중이 외국서적은 8%에 불과한 반면 우리 책의 경우 3배 넘는 27%나 된다는 것이다.

기고 김창국



사랑 나눔을 호소하는 구세군의 종소리 따라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또 저물어가고 있다. '하루 해가 저물러 할 때 저녁놀이 아름답고, 한 해가 저러할 때 고향이 더욱 그리워'는 채근담의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감정도 연륜 따라 가속도가 붙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실속 없이 나들이어가는 것이 안타깝고 두려울 뿐이다.

서은 것만 같다. 찬란한 네온사인의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의로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 독자 여러분의 따스한 손길을 에타게 그리며 소년·소녀가장과 장모로 인해 제 한 몸조차 온신 못한 채 도우미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는 우리의 가슴을 저리게 한다.

'사랑의 나눔운동'에 동참하자

아리치고 한 공기를 가르며 새벽시장을 찾아 영세 상인들의 두 손을 붙잡고 손과 발이 되고 가슴이 되어주겠다고 환히 미소 짓는 정치인들의 야누스적인 표정에 더욱 가슴이 저러온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자라나는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사회정의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펼쳐가라고 방관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

간을 쪼개 불우시설의 할머니들을 찾아 마치 친 부모처럼 목욕을 시키고, 박봉속에서도 과일상자를 등에 진 채 무담독녀와 함께 서툰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조금 앓은 노인들을 위로하는 한 택시기사 부녀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며 살 맛을 느끼곤 한다. 작은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의 천사들이 많이 존재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밝아지고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태안사 자원봉사하며 해님이·해맞이 축제 뜻깊어

태안 지역에서 연말 연시를 맞으려던 관광객들이 잇달아 예약을 취소하고 있다고 한다.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으니 안심하고 놀러 오라"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홍보에도 예약이 없다고 한다.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기왕이면 태안 지역에서 자원 봉사를 하며 해님이 및 해맞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름 유출 사고를 입었다며 서해안 지역 방문을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찾아가 뜻깊은 자원 봉사 활동을 펼치면서 해맞이 등의 축제에 참여해 준다면 지역 주민과 경제를 위해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장영주·광주시 동구 신수동